



호남권 예산정책 협의회 기념사진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호남권 공직자들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운용 탄력 군공항이전본부 신설... '5·18민주화운동'으로 용어 통일

광주시가 하반기 조직정비를 앞두고 추진한 조직개편안 의회 문턱을 넘어서 인력과 조직 운용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대신 5·18 민주화운동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노동과 일자리 기능을 재배치해 기존 노동정책관을 문화경제부시장실 직속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수정안의 주된 골자다.

또 본청에서는 군공항이전본부가, 직속기관으로는 119특수대응단과 빛고을국민안전체 협관, 사업소로는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와 광주시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이 신설된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가족국, 군공항교통국은 교통국, 인공지능산업국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실은 경제창업국, 공무원교육원은 인재교육원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생명농업과는 농업동물정책과로, 기후대기정책과는 환경보전과로 바뀐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의 지방자치분권 업무와 여성가족교육국의 인구정책총괄 업무, 민주인권평화국의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모두 기획조정실로, 투자유치기획 업무가 경제창업실에서 인공지능산업실로 이관되는 등 11개 업무의 주무부서가 변경됐다.

군공항이전본부 신설로 본청 조직은 14실국 73과에서 1본부가 늘고 1과가 줄어 15실국 72과 체제로 바뀌고, 총정원은 4196명에서 4197명으로 1명 증원 조정됐다. /조선구 기자

##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한목소리'

국힘 "숙원사업 해결"...광주서 호남권 예산정책 회의  
 광주, 5·18 헌법 수록·AI·오페라 하우스 등 11건 건의  
 전남, 첨단소재 산단·국립 의대·농수협 이전 등 요청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으로는 광주·전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올린 국민의힘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보듬기'에 나섰다.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 3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역 현안과 국비 지원을 진심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지난 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이후 28일 만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권역별 예산협의회 중 첫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호남권 3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지자체예산 강기정 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지사가,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당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송연석 예결특위 여당 간사, 김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호남권 시·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과 전주 출신 이용호 국회 예결위원이 나란히 참석해 '호남 께안기'에 힘을 보탰다.

협의회에서 호남 3단체와 국민의힘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 정책 지원 사항과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통현안이자 대선 공약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비수도권임에도 국내 유일의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원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지역별 현안으로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2단계(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조성) 고도화 ▲미래차 대전환 핵심부품 고도화기술개발 실증 ▲광주오페라하우스(전문예술극장) 건립 ▲국립현대미술관광주 디지털관 유치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광주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건의했다.

또 ▲광주시 의료원 타당성 재조

사 통과 ▲수직이·착륙기 비행 안전성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정책과제로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비롯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국립의대 설립 ▲한국에너지공단(켄텍)안정적 지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이전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입법화 등 모두 9건을 건의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SOC 조기 확충을 포함해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화 등 9건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광주·전남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당 대표로서 마음도 힘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전남 22년 만에 국회 예결위원장 배출 서삼석 의원...정부 예산안 심사·지역 사업비 막강 권한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22년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예결위원장은 약 670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데다 지역구 사업 예산까지 챙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호남 정치권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2표 중 209표를 얻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신임 위원장의 득표에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표까지 물려 있어 국회 내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올해 결산안과 함께 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숙원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료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일차 상임위원장'으로 꼽힌다. /김도기 기자



과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호남 정치권은 조선 의원들이 많아 국회 내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올해 결산안과 함께 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숙원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료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일차 상임위원장'으로 꼽힌다. /김도기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